

# 서울로 가는 길

## 1. 일반현황

조사일시	2017.04.25.	조사자	정화영	유형구분	문화예술-연구진제안
------	-------------	-----	-----	------	------------

대상명	서울로 가는 길
-----	----------

### □ 대상의 개요

보존대상의 특성	무형	물리적형태	-	보존대상의 가치범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단위 <input type="checkbox"/> 마을단위
----------	----	-------	---	------------	--

가수	양희은	작사가	김민기	작곡가	김민기
음반 제작연도	1971년	음반 제작사	서울음반	음반 규격	-
가사	우리 부모 병들어 누우신지 삼년에 뒷산에 약초뿌리 모두 캐어드렸지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늙으신 부모 모실까 서울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멀으나  아침이면 찾아와 울고 가던 까치야 나 떠나도 찾아와서 우리 부모 위로해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늙으신 부모 모실까 서울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멀으나 앞에 가는 누렁아		왜 따라 나서는 거냐 돌아가 우리 부모 보살펴 드리렴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늙으신 부모 모실까 서울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멀으나  좋은 약 구하여서 내 다시 올 때까지 집 앞에 느티나무 그 빛을 번치마라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늙으신 부모 모실까 서울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멀으나		

평가	<p>이전까지의 서울 관련 노래들이 비교적 서울을 낙관과 희망의 도시로 그리고 있는 것과 달리, &lt;서울로 가는 길&gt;은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가야 하는 시골 처자의 비애를 사실적으로 담고 있는 노래이다.</p> <p>늙고 병든 부모를 떠나 서울로 가야 하는 노래 속 화자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자신이 떠나면 누가 부모를 모실까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에 까치를 부르고 누렁이를 부르며 자신의 부모를 위로해주고 보살피 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매절마다 “서울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멀으냐” 며 서울로 가야 하는 자신의 착잡하고 아픈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p> <p>1집에 수록된 &lt;아침이슬&gt;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양희은은, 그녀가 부른 노래가 연속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대중에게 대표적인 포크 가수로 각인되었다. &lt;서울로 가는 길&gt;이 실려 있는 음반에는 이 노래 외에도 &lt;백구&gt;, &lt;작은 연못&gt;, &lt;등대지기&gt; 등이 실려있는데, 모두 큰 인기를 얻었다.</p> <p>하지만 이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한 김민기가 유신 정권에서 ‘요주의 인물’로 간주되면서 그가 만든 노래가 금지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양희은 부른 &lt;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gt;이나 &lt;작은 연못&gt; 등이 모두 그러한 예이다. 그런 중에도 청바지와 통기타로 대변되는 청춘문화의 대표 주자였던 양희은은 많은 사랑을 받았다. 요컨대, &lt;서울로 가는 길&gt;은 무조건적인 낙관과 희망의 정서 대신 사실적이고도 비관적인 정서를 표출했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p>
----	---

## 2. 보존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0년대 서울의 사회상과 서민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음</li> <li>- 서울의 근현대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표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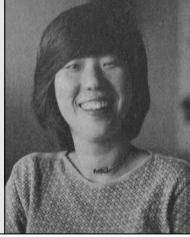
## 3. 활용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과 연관된 노래에 대하여 기록화하고 자료를 수집</li> <li>- 시민홍보를 통해 작품의 가치를 일반 시민들과 공유</li> </ul>
---


## 4. 소유자(관리자) 면담

면담자	
면담내용	

## 5. 인물(사건)에 관한 기본정보

이름	양희은 (楊姬銀, 1952년 ~ 현재)	인물사진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2년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출생</li> <li>- 1968년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li> <li>- 1971년 서강대학교 사학과 입학</li> <li>- 1971년 「아침이슬」로 가수 데뷔</li> <li>- 2001년 월드컵아시아경기대회 안전홍보위원</li> </ul>		
주요작품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1년 노래 「아침이슬」, 「서울로 가는 길」</li> <li>- 1974년 노래 「내 너의 사랑은」</li> <li>- 1975년 노래 「한사람」</li> <li>- 1976년 노래 「들길 따라서」</li> <li>- 1978년 노래 「거치른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li> <li>- 1983년 노래 「하얀 목련」</li> <li>- 1985년 노래 「한계령」</li> <li>- 1987년 노래 「이별 이후」</li> <li>- 1991년 노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li> <li>- 1995년 노래 「내 나이 마흔에는」</li> <li>- 1998년 노래 「연인들」</li> <li>- 2002년 노래 「사랑 당신을 위한 기도」</li> <li>- 2006년 노래 「당신만 있어준다면」</li> <li>- 2014년 노래 「2014 양희은」</li> </ul>		
수상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5년 대한민국 가수상 수상</li> <li>- 1977년 대한민국 가사대상 수상 「하얀 목련」, 「들길 따라서」</li> <li>- 1995년 방송프로듀서연합회 최고의 라디오 진행자상 수상</li> <li>- 1996년 제 23회 한국방송대상 가수상 수상</li> <li>- 2004년 MBC 방송연예대상 공로상</li> </ul>		
기타사항	-		

※ 출처: 한국 대중가요 앨범6000 [양희은] (<http://terms.naver.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양희은] (<http://terms.naver.com>), 네이버 뮤직 [양희은] (<http://music.naver.com>), 위키백과 [양희은] (<https://ko.wikipedia.org>)를 바탕으로 재정리

이름	김민기 (金民基, 1951년 ~ 현재)	인물사진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1년 전라북도 이리 (현 익산시) 출생</li> <li>- 1966년 경기고등학교 입학 후 미술반 활동 및 기타 독학</li> <li>- 1969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입학, '도비두(도깨비 두마리)' 그룹 활동</li> <li>- 1971년 「아하 누가 그렇게」로 가수 및 작곡가 활동 시작</li> <li>- 1971년 「김민기 노래모음 1집」 발표</li> <li>- 1977년 서울대학교 미대 졸업 및 교사 자격증 취득</li> <li>- 1981년 마당극 「1876년에서 1 '노래를 찾는 사람들 1집」(1984) 제작</li> <li>- 1983년 연극 「멈춰 선 저 상여는 상주도 없다더냐」의 극본, 연출 담당</li> <li>- 1991년 「겨레의 노래」 총감독 및 록뮤지컬 「지하철 1호선」 연출, 기획 담당</li> </ul>	
주요 작품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0년 「아침이슬」 작사·작곡</li> <li>- 1971년 「아하 누가 그렇게」, 「친구」, 「서울로 가는 길」 작사·작곡 및 발매</li> <li>- 1973년 「금관의 예수」 작곡</li> <li>- 1974년 극본 「야구」</li> <li>- 1977년 「상록수」 작곡</li> <li>- 1978년 「소리긋 야구」 음악과 각본 담당, 「공장의 불빛」 완성</li> <li>- 1979년 창작극 「돼지풀이」 기획</li> <li>- 1983년 연극 「멈춰 선 저 상여는 상주도 없다더냐」 연출</li> <li>- 1985년 「봉우리」 작사·작곡</li> <li>- 1987년 어린이 뮤지컬 「아빠 얼굴 예쁘네요」 대본·작곡</li> <li>- 1994년 공연 「지하철 1호선」 제작·연출</li> <li>- 1995년 공연 「개똥이」 극작·작곡·연출</li> <li>- 1998년 공연 「의형제」 제작·연출</li> </ul>	
수상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파라다이스상 문화예술부문 수상</li> <li>- 2007년 독일 바이마르 피테 메달 수상</li> <li>- 2008년 제 57회 서울시 문화상 연극부문 수상</li> <li>- 2013년 제 10회 한국대중음악상 특별분야 공로상</li> </ul>	
기타사항	-	

※ 출처: 네이버 뮤직 [김민기] (<http://music.naver.com>), 두산백과 [김민기] (<http://terms.naver.com>), 위키백과 [김민기] (<https://ko.wikipedia.org>)를 바탕으로 재정리

## 6. 기사사항

### □ 관련기사 - “[8090 이 노래 이 명반] 29. 양희은의 1, 2집”

1971년 당시 그녀는 라디오 방송과 클럽을 중심으로 분주한 활동을 펼쳤다. 이 해 연이어 컴필레이션 음반 '71년 폭송 히트모음 1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발표했다. 그리고, 1972년에는 2집 '서울로 가는 길'을 내놓았다.

1집 타이틀곡 '아침이슬'로 존재를 알린 양희은은 포크콘서트 공연을 통하여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였고, 공연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청바지 차림에 맨발로 고목나무 위에 걸터앉아 통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사진으로 장식된 양희은 2집은 재킷만으로 동시대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우아하면서도 감정이 절제된 청량감이 감도는 노랫가락은 기존의 낡은 사랑 타령 가요들을 누르며 포크송의 위세를 떨치게 했다. 수록곡 '서울로 가는 길', '백구', '작은 연못', '새벽 길', '아름다운 것들'은 1집에 버금가는 파장을 일으키며 빅 히트했다. 당시 그녀가 클럽 한 곳에서 받은 개런티가 기자들 초봉의 세 배가 넘는 4만원이었다고 하니 가히 그 인기가 어떠한지 짐작이 갈 것이다. 1972년 가을부터는 라디오 DJ로도 활동폭을 넓히며 전성기를 열어가던 그녀에게 1973년부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서유석과의 결혼 스캔들이 터져 세간의 화제가 되더니만 '꽃피우는 아이', '아침이슬', '늙은 군인의 노래', '엄마! 엄마!', '작은 연못', '백구', '서울로 가는 길' 등 무려 30여 곡이 무더기로 독재 정권에 의해 금지곡으로 제단되었던 것.

아이러니컬한 것은 독재정권이 간섭을 하고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이른바 금지곡들은 더 큰 생명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 지성팬들은 포크 가수들의 금지곡들을 저항 가요의 대표곡들로 바꾸어놓았다. 그래서 양희은의 '아침이슬'이나 '작은 연못' 같은 노래들도 일반 무대에서는 듣기 힘들었으나 대학생들의 민중화 시위 현장이나 노동자들의 시위 현장에서는 언제나 들을 수 있는 노래가 됐다. 양희은이 한때 '운동권 가수'로까지 인식되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녀는 "나는 결코 운동권이 아니었고 암울한 시절의 시대상황이 내가 부른 노래까지 어렵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출처: 부산일보 2016년 1월 21일 기사내용 (<http://news20.busan.com>)

### □ 관련기사 - “[노벨문학상 밥딜런과 김민기②] 그는 왜 양희은에게 ‘아침이슬’ ‘상록수’를 주었나?”

‘아침이슬’과 ‘상록수’는 멋진 노랫말과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김민기는 1951년생으로 빠른 52년생인 ‘양희은’과 같은 해에 학교를 다닌다. 그는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미대 회화과로 진학한다. 미대 1년생 김민기는 앨범을 낸다. 그 속에는 놀랍게도 그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수록돼 있다. ‘친구’ ‘아침이슬’ 등. 어느 날 야외에서 풍경화를 그리는데 그림을 수정하려고 칼로 화면을 긁어내다가 캔버스에 구멍이 났더라. 그런데 그 구멍 사이로 방금 그가 그리던 나무가 보였다고 한다. 그 순간 그는 ‘도대체 이런 그림을 그려서 뭘하지. 조금만 움직이면 저 나무를 내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은 그를 깨우치게 했고 마침내 그의 인생행로를 바꾸게 된다.

김민기는 여자 친구에게 노래를 선물하는데 그 친구가 바로 서울 재동초등학교 동기동창이자 경기여고에 진학했던 양희은이다.

출처: 아자미디어앤컬처 2016년 12월 1일자 기사내용 (<http://kor.theasian.asia>)